2015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 국 가: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 기 간: 2015. 4. 14. ~ 4. 23. (8박 10일)

충 청 남 도 의 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목 차

1. 총 평 ---------- 1

2. 연수개요 ---------- 2

3. 연수배경 ---------- 2

4. 나라별 주요연수내용 ---------- 3

-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3

※ 참고자료(선진사례)

- 폐공장리노베이션 사례 29
- 프랑스의 거리청소 실태 30

5. 향후조치계획 및 후기 ---------- 31

【자료수집】

- 프랑스 농림부 등
  동물전염병(구제역) 관련 자료 별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Ⅰ 총 평

◆ 2015. 4. 14.~23. 10일간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따라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의 협동조합, 농수산물 유통, 친환경농업, 산림녹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관련기관 방문을 통하여 연수실시

❍ **이탈리아**의 농업조합과 협동조합 판매장 등을 방문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판매, 그리고 농업과 농업인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 시행과 소통을 통한 선진 농업 시스템 구축을 살펴보았으며,

❍ **스위스**의 투르가우주 의회, 농업인 학교 등을 방문하여, 우리 충남도와 같은 농업지역의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농업 보조금 지원 방안 등 선진 사례를 연수하였음.

❍ **프랑스**의 헝지스 국제 농수산물유통시장, 갈리 체험농장, 양묘협회 등을 방문하여 농수산물 유통 시스템, 농수산물 유통·가공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농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체험농장 운영방법, 산림녹지 분야 발전을 위한 전략 등 선진 농업, 산림 사례와 시스템을 볼 수 있었음.

⇨ 금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은 위원 전원(8명)이 참석, 방문 기관마다 열띤 질문과 토론은 물론, 선진국의 제도를 체험하고 배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열의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됨.

⇨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견문을 넓혀, 다양한 정책사례와 효율적인 정책 대안 제시 마련

II 연수개요

- 기　　간: 2015. 4. 14. ~ 4. 23.(8박 10일)
- 대상지역: 3개국(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 참여인원: 14명(의원 8, 의회사무처 4, 집행부 2)
  - 의　　원(8): 김홍열 위원장, 강용일 부위원장, 김문규, 김용필, 김명선, 김복만, 전낙운, 홍재표 의원
  - 의회사무처(4): 농경환위 전문위원실 3, 입법정책담당관실 1
  - 도 본 청(2): 농정국 1, 환경녹지국 1
- 소요경비: 70,000천원
- 방　　법: 전문여행사 대행

III 연수배경

경제 분야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사례 등 ・대·중소기업 상생발전 및 제품 판로 개척에 대한 선진사례 등
농업 분야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의 선진 시스템 구축 방안 등 ・3농혁신, 농업의 6차산업화 사례, 가축전염병 대응책 비교 등
환경 녹지 분야	・자연과 조화로운 친환경 건축 산업 발전 사례 등 ・선진 양묘 생산·유통 시스템과 양묘 산업 발전 방안 등

Ⅳ 나라별 주요 연수내용

□ 연수세부일정

일 자	장 소	교통편	연 수 일 정	비고
제1일차 (4. 14, 화)	도의회 인 천 로 마	전용차량 국제항공 전용차량	○ 도의회 출발(08:30) → 인천공항(11:00) ○ 인천공항 출발(14:00)/KE931 ○ **로마 도착 (12시간 15분소요)**	
제2일차 (4. 15, 수)	로 마	전용차량	○ **이탈리아 협동조합 판매장** -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제3일차 (4. 16, 목)	로 마 피렌체 볼로냐	열차 전용차량	○ **이탈리아 농업조합 방문** - 농업조합 경제부 책임자와 간담회	
제4일차 (4. 17, 금)	볼로냐 베니스 베르가모	전용차량	○ **베르가모 전통시장 탐방** - 전통시장의 운영 활성화 자료수집	
제5일차 (4. 18, 토)	베르가모 밀라노 루체른 인터라켄	전용차량 열차	○ **밀라노 아케이드 탐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 개발 자료 수집	
제6일차 (4. 19, 일)	인터라켄 베 른	전용차량	○ **스위스 협동조합 판매장** -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 **융프라우 탐방**	공휴일 (기관방문 불가)
제7일차 (4. 20, 월)	베 른 바 젤 파 리	전용차량 T.G.V.	○ **스위스 투르가우주 의회, 농업인 학교 방문** - 의회 책임자, 농업인학교 교장과 간담회	
제8일차 (4. 21, 화)	파 리	전용차량	○ **헝지스 국제 농수산물 유통시장 방문** - 농수산물 생산·유통 시스템 비교·분석 ○ **갈리 체험농장 방문** - 체험농장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방안 비교	
제9일차 (4. 22, 수)	파 리	전용차량 국제항공	○ **파리 전통시장 탐방** ○ **프랑스 양묘 협회 방문** - 부대표 및 양묘 전문가와 간담회 ○ 파리 출발(KE902)	
제10일차 (4. 23, 목)	인 천 도의회	국제항공 전용차량	○ 인천공항 도착(15:00) ○ 인천출발(15:30) → 도의회 도착(18:00)	

1 협동조합 판매장 (이탈리아, 스위스)

1) 일반현황

❍ 스위스 소비자협동조합 현황

- 조합원 수: 510만명(전국민의 64%), 시장점유율: 36.7%
- 매 출 액: 528억 1,700만CHF(스위스프랑)/ 약 63조 3,804억원(2012년 기준)
- 설립목적: 질 좋은 제품을 조합원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

❍ 이탈리아 협동조합 현황

- 조합원 수: 약 3,700만명(전체인구의 60% 정도)
- 이탈리아 대기업의 9%가 협동조합이며, 전체 고용인원의 25%를 담당

2) 시사점

❍ 우리에게 친숙한 수퍼마켓의 형태로 생협 매장이 운영되고 있었고, 비회원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으며, 다른 생산자 협동조합들과의 유기적인 연계로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여, 대형마트와 차별될 수 있었음.

▶ 국내에도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유럽의 오랜 시간동안 축적해 둔 노하우와 자산을 배워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경제를 이뤄야 함.

❍ 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지 않고, 조합원들에 대한 기여에 있으며, 지역의 생산자는 곧 또다른 소비자가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서로 협동하는 것이 모두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임을 이해

▶ 대기업, 대형마트 위주의 생산, 소비는 결국 지역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못함.

▶ 지역 주민의 협동으로 기반을 구축하고, 점차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해 나간다면, 사회적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탈리아의 소비자협동조합 판매장】

【스위스의 소비자협동조합 판매장】

2 이탈리아 농업조합 (Confagricoltura, Emilia Romagna)

1) 일반현황

- 방문일시: 2015. 4. 16.(목), 16:00 ~ 18:20
- 설립목적: 이탈리아의 농업 보호조직
- 조직구성: 지역연맹(19), 주연합(95), 지역사무소(2,143), 카테고리별 조합, 품목별 조합 등
- 조 합 원: 15,000명
- 주요업무: 농업과 농촌 기업을 육성 지원
  - 농정활동, 농촌 관광사업, 농업기업의 설립과 경제·기술적 지원
  - 정부와 주정부 등을 상대로 농업계의 입장을 대변
- 본부 소재지: 이탈리아 로마
  - 기타 EU 국가 지원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도 사무실이 있음

2) 주요 연수내용

- 농업총연맹조합의 역할 및 정부지원 사례 수집
  - 이탈리아 각 도시마다 총연맹조합 사무실 설치
  - 연맹조합은 농민대표격으로 주정부와 대화 시도
  - GMO(유전자변형) 반대하는 법조인들과 탄력적으로 의논
- 농업총연맹조합의 농산업 기업 육성 사례
  - 농업인들의 권익보호, 전국 단위 네크워크 구축 등 교류협력
- 농촌의 고령화, 이농현상 해결을 위한 농업총연맹조합 역할

3) 시사점

- **농민조합 지원을 통한 농산업 기업 육성**
  - 농장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아그리투어리즘으로 도시 소비자가 농가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 농기업 창업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이윤 창출계획 등 서류신청, 특히 산간지방일 경우 100% 창업자금 지원

❍ 자유무역으로 인한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해 100% 이탈리아 농산물 인증 FRIMA 인증제 및 생산자 직거래 유도

-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는 생산에 도움을 받고 소비자는 좋은 상품(품질향상)을 보증

❍ 세계적인 웰빙 음식선호 증가에 따라 올리브 오일, 토마토 등 국내 과잉 공급량을 수출로 해결하고 있음.

- 국내산 농산물 또한 공급량 조절보다는 수요처 확보 노력 필요

4) 주요 질문내용

◆ 김홍열 위원장

❍ 한국 농촌은 저출산, 고령화, 이농현상에 따른 농촌 황폐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

▶ **이농현상은 전유럽에 걸쳐 발생, 40세이하 젊은이들에게 직종, 작물에 따라 5년동안 차등지원하며 농촌의 소외,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문화시설 환경 조성에 중점**

❍ 농업총연맹조합 가입조건 ?

▶ **본인 땅이 있는 자영농과 임차인 별도 구성**

- 주정부 차원에서 같은 작물 재배하는 사람들 끼리 1한달에 1번 모임 및 토론

❍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좋은 시책이 있다면 ?

▶ **농지 소유 농업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

◆ 홍재표 의원

❍ 농촌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민 유치 정책이 있다면 ?

▶ **농가의 빈 농장을 호텔, 식당, 도시민들이 농촌체험을 실시하여 농촌에 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패키지 지원 등 도농교류 및 농어민 공동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함.**

○ 농촌 고령화 대비 지원 시책이 있다면 ?

▶ **어느 정도 연령이 지나면 연금 혜택이 있어 농촌 고령자의 별도의 지원은 없음.**

◆ 김명선 의원

○ 산간 등 생활여건이 안좋은 지역에 살면 특별한 혜택과 지원이 있는지 ?

▶ **정부 지원금 100%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최고의 가격 형성**

◆ 김복만 의원

○ 농촌마을과의 대기업간의 1사1촌 자매결연 시책이 있다면 ?

▶ **대기업의 농기계 지원이 있으나 자매결연 시책은 없음.**

◆ 강용일 의원

○ 농업인 창업 지원 정책은 ?

▶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증, 계획서, 이윤 창출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 신청,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있으며 특히, 산간지방은 100% 지원**

◆ 김용필 의원

○ 농업총연맹조합 운영 방식과 별도 이익창출 사업이 있는지 ?

▶ **별도 정부지원은 없고 15,000명의 조합원 회비로 운영**

◆ 김문규 의원

○ 전통식품 등 소규모 농산업 육성 지원책이 있다면 ?

▶ **각 지역 특산물 인증마크제, 생산이력제, 박람회 참가비 지원, 시설물 설치비(30~40%)**

【이탈리아 농업조합 경제부 책임자와 간담회】

3 전통시장 (베르가모, 파리)

1) 시사점

- 지역 관광지 주변에 노천 마켓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뿐만아니라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음.
- 소규모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먹거리와 퍼레이드 등 문화 공연도 함께함.
  - 다만, 우리의 연예인 공연 등 스토리 없는 1회성 행사는 지양.

【이탈리아 베르가모의 전통시장 탐방】

【프랑스 파리의 전통시장 탐방】

4 스위스 투르가우주 의회, 농업인 학교 (Thurgau)

1) 일반현황

- 방문일시: 2015. 4. 20.(월), 09:30 ~ 12:00
- 구　　성: 80개 마을/ 25만여명/ 면적-991㎢/ 예산-약 3조원
- 주요산업: 농업, 전통적 섬유공업, 기계, 화공 등

2) 주요 연수내용

- 투르가우주 의회는 전체의원수가 130명이며, 6명의 대표의원이 회의 소집 등 의회운영을 주도함
- 매 2주마다 전체 의원이 모여 회의를 열며, 의원 개인에게 고정적인 봉급을 지급하지는 않음
- 농업인학교는 일종의 마이스터 학교로서 학생들에게 학비의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농업자격증을 취득해야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 1ha 당 1,200CHF(스위스 프랑, 약 140만원)을 지원
- 투르가우주의 농업인의 평균 GDP는 5만불 정도로, 취리히 등의 7만불 이상의 GDP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도심지역의 높은 물가와 주거비용 등을 비교하면 생활수준에는 차이를 느끼지 못함
- 스위스의 농업학교 운영 시스템 등 농업교육 제도
  - 고등학교 과정으로 1,2학년 때는 주4일 마이스터 농장에서 실습교육, 하루만 학교에 출석해 이론교육과 실습일지를 제출
  - 3학년은 겨울에만 수업(봄부터 가을까지 농업에 종사), 4일간 이론수업을 실시하고, 하루는 실습농장에서 자격증 시험 준비

3) 시사점

❍ 스위스에서는 농업인 자격증제도 시행

- '국가농업자격증'이 없으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함.

❍ 산간지역 등 환경이 열악할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농민에게 지원

❍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음

▶ **농업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 자연과 함께하는 직업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게)**

▶ **농업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기존 전통농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생산과 가공 등에 젊은 인력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도시생활에서 농촌생활로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부각

4) 주요 질문내용

◆ 김홍열 위원장

❍ 농업학교 운영 시스템에 관하여 ?

▶ **농업인들에게 경작부터 질 좋은 농산품의 생산, 유통, 판매까지 농업기술 배양 3가지 각기 다른 농업을 배우고 농가에서 3년동안 실습**

- **실습 3년동안 한번은 학교에서 이론수업 후 농업인자격증 발급**

▶ **20~28살 정도 500시간 공부하면 농촌 마이스터 자격증 취득**

- **투르가우주에는 목축업 가장이 많으며 3년동안 월급(400~500프랑) 수령**

❍ 농업학교 학비 지원에 관하여

▶ **1/3은 농어민, 2/3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김복만 의원

❍ 졸업후 진로, 농업인 생활 소득수준 ?

▶ **졸업생 90%이상 농업에 종사, 1년 평균 10만 프랑(부부합산, 가족단위 1억2천) 수입**

◆ 강용일 의원

○ 스위스 1인당 GDP 6만8천 프랑과 비교해 농업인 소득수준은 ?

▶ 실제 1인당 GDP 5만5천 프랑, 농업인 소득수준(5만프랑)은 평균 수준임

○ 농촌일손 부족 해결방안은 ?

▶ 평균 사무직은 일주일 43시간, 농업인은 55시간 종사

◆ 전낙운 의원

○ 유기농업에 얼마나 종사하는지 ?

▶ 농업인 10% 정도가 바이오농업에 종사

○ 투르가우주 지역의 특산물은 ?

▶ 사과(50%), 자두, 체리, 샐러드, 축산업에 대부분 종사

◆ 김용필 의원

○ 농업인의 국제결혼 실태 및 지원책은 ?

▶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결혼 못하는 사례는 없음.
주정부마다 지원이 다르며 특히 산악지역은 농촌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해줌.

◆ 김명선 의원

○ 마이스터 자격증 취득 졸업생에 대한 추가 지원은 ?

▶ 학비 2/3 주정부 지원 중분, 창업 종사업비의 50% 정부지원(세금면제)

▶ 종사업비의 50% 및 세금면제 혜택

【투르가우주 의회, 농업인학교 방문 및 간담회】

5 헝지스 국제 농수산물 유통시장 (Rungis Marche International)

1) 일반현황

- 방문일시: 2015. 4. 21.(화), 08:00 ~ 11:00
- 종 사 자: 15,000여명
- 운영체계: 시장도매인제도 시행(수의매매)
- 시설규모: 230만㎡(토지), 55만㎡(건물)
  - 청과시장: 170×60m/동 × 12개동
  - 수산시장: 270×75m/동
  - 낙농제품 시장: 131×60m/동
  - 화훼시장: 180×123m/동
  - 축산시장: 144×50m/동
- 주변여건: 오를리(ORLY) 국제공항, 고속도로(3개), 고속철도

2) 주요 연수내용

- 유럽 최대의 농수축산물 도매시장
- 한해 거래 규모가 9조원(2008년 기준)에 이름
- 정부가 중심 주주 참여해 공공성과 안정적인 투자자금 확보
-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인 세마리스(SEMMARIS)는 혼합경제회사로 자체적 경영으로 이윤을 얻지만, 이윤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시
- 관리사무소의 주 수입원은 시설 임대료와 관리비이며, 시장의 운영은 별도의 시장운영위원회가 함
- 구매자 및 관광객들을 위한 연계상품 등 소득 창출
- FTA 체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 사례

3) 시사점

- 농수축산물 유통에는 상인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음

❍ 인구가 많은 대도심 인근지역으로 도로, 철도, 항공 등 물류의 기반이 되는 교통의 편리성이 유통시장의 기본임

❍ 우리나라의 생산지 영세성, 조직화, 규모화의 결여

- 산지와 도매시장, 소비지 시장의 유통환경이 서로 다름 인식
- 소비지 유통주체는 규모화 조직화 되었으나, 생산자 단체 영세성

▶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

❍ 유럽연합은 생산자의 개별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조합 또는 회사를 통해 판매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생산자 조직화를 제도적으로 지원

▶ **농업인 개인 출하에서 생산자 중심의 조직화 필요**

❍ 생산자 조직이 유통업체에 대해 브랜드 정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의 자체브랜드 개발비 지원 확대 등

4) 주요 질문내용

◆ 김홍열 위원장

❍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형성된 계기와 현황은 ?

▶ **원래 파리 시청 인근에 도매시장이 형성되었다가, 도시화 등으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1953년 샤를 드골 대통령 시절 현 위치 외곽으로 옮김**

- **Orly 공항, 고속철도, 세느강 수로와 항구 연결 등 수송 요충지**
- **1,000여개 회사가 입주, 1일 6,000톤이 거래되어 파리 근교 1,800만 명에게 공급, 종사자는 15,000명, 차량은 24,000대가 출입**

◆ 강용일 의원

❍ 상품의 매매 방식과 장점은 ?

▶ **생산자가 직접 출하하지 않고 생산자 조합에서 수집·포장·출하를 수행하며 특히, 경매를 하지 않고 생산자 조합과 도매 회사 간 계약에 의해서 가격과 물량을 조정**

◆ 김복만 의원

❍ 농산물의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 외국산 농산물은 생산지에서 현장 검역을 실시하고, 자국내 농산물은 생산자 조합에서 자체 검사를 실시

◆ 홍재표 의원

❍ 상품의 단위를 파렛트로 통일 하였는데, 이유는 ?

▶ 물건 혼합 등의 실수 방지를 위해 모든상품 1파렛트 1상품

◆ 전낙운 의원

❍ 상품의 포장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

▶ 상품 균일하게 선별 후 소포장 뒤 박스 포장(중간 소분과정 불필요)

- 유럽연합 품질 기준에 따라 라벨의 색깔로 제품 등급 표시(빨강 특상, 녹색 1등급)
- 제품 속이 보이는 오픈 포장(속박이 불가능), 1단 적재 포장

◆ 김용필 의원

❍ 농수산물의 특성상 대량의 상품들이 빠른 시간에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특화된 유통시스템이 있는가 ?

▶ 냉동탑차까지 이어지는 콜드체인 시스템(저온저장고)

▶ 농산물이 외벽으로 들어와서 바로 벽으로 나갈수 있는 시스템

- 농산물 이동거리 매우 짧으며 노동력 절감
- 건물 외벽은 물류용 차량이 농산물을 쉽게 넣고 빼는 구조

FT-5

FT-5
Agr Sun

【프랑스의 헝지스 국제농수산물 유통시장 방문 및 브리핑】

6 갈리 체험농장 (La Ferme de Gally)

1)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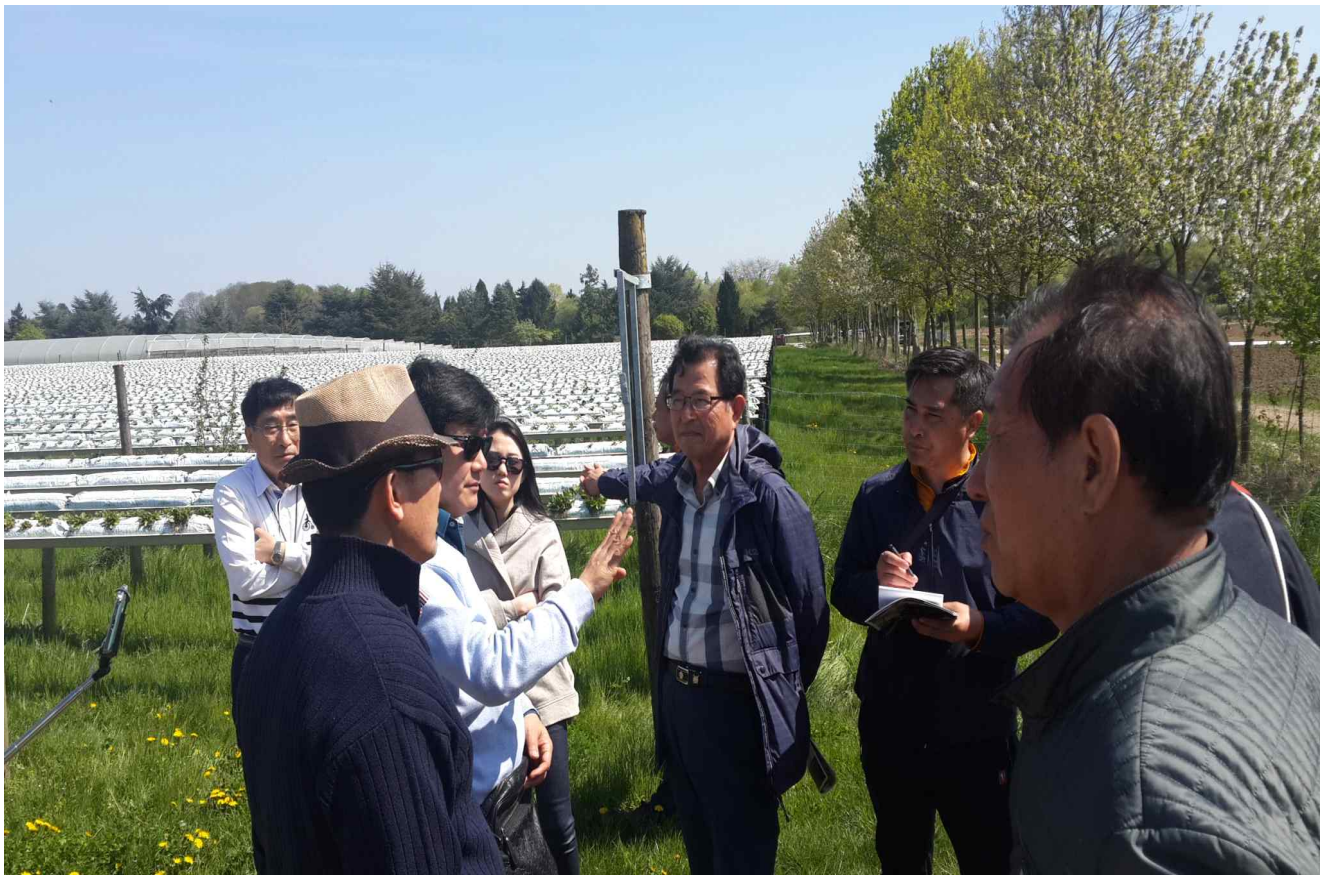
- 방문일시: 2015. 4. 21.(화), 14:30 ~ 16:00
- 시설현황: 1985년 개장/ 50ha
- 재배품목: 딸기, 토마토, 양파, 감자, 상추 등 다양한 밭 재배 작물과 튤립 등 화초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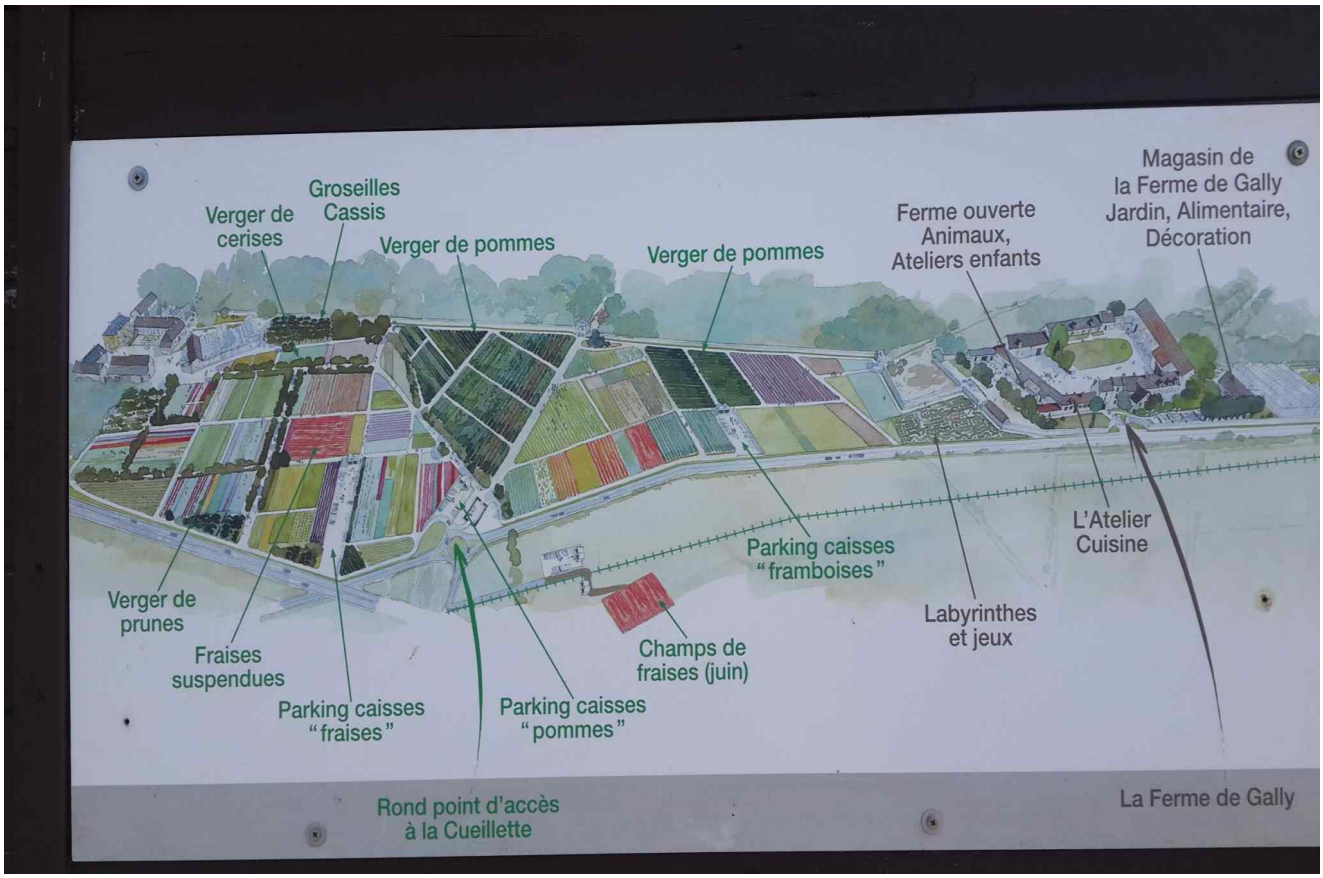
2) 주요 연수내용

- 연간 10만명 이상 방문하여 농장 체험과 친환경농산물 구매
- 농장 직원이 관리해 놓은 친환경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본인이 수확해 담아갈 수 있음
- 어린이와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동물체험, 빵만들기, 꿀 채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시사점

- 건강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을 체험농장의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
-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Groseilles
Cassis
Verger de
cerises
Verger de pommes
Verger de pommes
Ferme ouverte
Animaux,
Ateliers enfants
Magasin de
la Ferme de Gally
Jardin, Alimentaire,
Décoration
L'Atelier
Cuisine
Parking caisses
"framboises"
Labyrinthes
et jeux
Champs de
fraises (juin)
Verger de
prunes
Fraises
suspendues
Parking caisses
"fraises"
Parking caisses
"pommes"
Rond point d'accès
à la Cueillette
La Ferme de Gally

【갈리 체험농장 탐방】

7 프랑스 양묘 협회 (Conseil Général de Seine-et-Marne)

1) 일반현황

- 방문일시: 2015. 4. 22.(수), 14:00 ~ 16:30
- 위　　치: 프랑스 파리(6 Rue Francois 1er 75008 Paris)
- 설 립 일: 1901년
- 역할 및 주요사업
  - 회원들의 수입 지지, 조경수의 생산과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변화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당국과 협상
  - 묘목 씨앗의 준비 및 수확, 고품질의 묘목을 생산·공급

2) 주요 연수내용

- 프랑스 산림 및 목재생산 현황에 대하여
  - ▶ **프랑스는 유럽에서 3번째 목재 생산국으로 유럽 산림의 13%를 차지, 전국토의 1/3이 산림으로 년간 원목생산액은 6천억유로이며 목재 관련 종사자는 년 45만명임. 프랑스는 1850년 이후 산림면적이 2배로 증가.**
  - ▶ **약 130여종의 수종분포를 보이고 이중 1/3 가량은 참나무류이며 지역에 따라 주요 수종분포가 각각 다른게 특징임. 보통 식재후 70년 이상 경과시 벌목하며 70%는 목재용, 20%는 종이생산용, 10%는 땔감용으로 사용**

- 프랑스 양묘산업의 과거와 현재
  - ▶ **1947년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아 FFN이라는 기구를 설립한 이래 1년에 7만ha 정도의 산지가 늘어남. 실제 사용 가능한 나무(경제림)를 심자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 그동안 3억㎡ 면적에 45억 그루가 심어짐. 현재도 년간 7천만그루가 식재되고 있음**
  - ▶ **1997년 소규모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중지된 이후 산지 증가율이 급감하였고 2030년이 되면 목재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 **산림의 경우 단위면적당 수익성이 농가에 비해 적으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조경수에 대한 수익성 감소로 관심이 떨어지고 있음**

○ 프랑스의 사유림 현황에 대하여

▶ 지난 50년간 사유림에서의 목재 생산량은 41% 증가, 산림소유자는 350만명이고 전체 사유림의 76% 이상을 38만명이 소유

▶ 사유림소유자는 매년 4천만㎥ 이상 목재를 생산하고 거의 대부분을 직적 판매

▶ 인건비 상승에 비해 목재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땔감용 목재 생산은 점차 줄어들고 고품질 목재생산은 증가 추세

3) 시사점

○ 지역별 기후 풍토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고 묘목의 성장속도 향상 및 병충해 방지에 도움이 되는 컨테이너 재배법을 활용하는 등 양묘관리를 효율적으로 함

▶ 기후변화 영향 및 병충해에 강한 수목을 선정하는 등 양묘관리에 적용 가능

○ 개인소유 산림이라 하더라도 25ha 이상이면 수목선정, 조림, 산지관리 교육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를 받음

▶ 경제림 위주의 수종 선택 및 체계적 산지 관리 등을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접목이 필요

4) 주요 질문내용

◆ 김홍열 위원장

○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은 무엇인가?

▶ 1997년 이전에는 소규모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나 그 이후 지원이 끊김, 정부지원 필요에 대한 의견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

○ 중대형 묘목의 컨테이너 재배시 장단점(경제성)은 무엇인가?

▶ 가장 큰 장점은 성장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 컨테이너(용기) 안에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노지재배시 2년이 소요될 것을 1년으로 앞당길 수 있음. 또한 주위 병충해 등으로부터 차단효과와 새로운 종의 경우에는 다른 종과 교잡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음.

◆ 김복만 의원

○ 프랑스에서는 산림 병충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병충해가 그리 많지는 않으나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병충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 묘목을 키울때는 약재 사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성장한 나무, 산림에 대한 약재 살포는 자제시키고 가급적 천적 이용 등 친환경적인 방재를 이용하고 있음.**

○ 양묘의 수출실태 및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 **양묘는 주로 트럭을 통해 수송하고 있으며 신속한 수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거리 수출은 어려움. 전체 생산량의 10%정도 수출이 이루어지며 거리상으로는 러시아까지만 수출이 되고 있음.**

◆ 김명선 의원

○ 유럽에서 특별히 선호하는 조경수는 어떤 것이 있는가?

▶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띠얼나무가 선호됨. 주로 꽃을 말려 차로 만들어 마심.**

【프랑스 양묘협회 부대표, 양묘전문가 등과 함께한 간담회】

참고자료1

폐공장 리노베이션 활용사례

❍ 스위스 취리히 웨스트지역은 1960년대까지 도시 외곽의 공장지대로 번성을 누려왔으나 1980년대 이후 지가 상승에 따라 공장들이 하나 둘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비워진 동네가 점점 낙후되고 버려진 채 방치되었으나

❍ 이후 조선소, 제철소, 와인창고 등 버려진 공장지대를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공연장과 전시장, 스튜디오, 레스토랑, 카페 등 새로운 문화아이템을 입지시켜 젊은이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됨

< 1960년대의 취리히 웨스트지역 >

< 과거 운영중이던 제철소 모습 >

❍ 그중 가장 눈여겨 볼만한 곳이 PLUS 5 라는 공장 리노베이션 건물로 이곳은 폐공장(제철소)내 기둥이 없는 넓은 공간을 보존하고 그 주변으로 다양한 상업, 업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새롭게 단장하고 공장 상부에는 3층 정도 규모로 주거공간을 새롭게 도입하여 살아있는 건물로 재탄생시킴.

< PLUS 5 외관 전경 >

< PLUS 5 내부 전경 >

❍ 폐공장을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색다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로서 시사점이 큼.

참고자료2

프랑스의 거리청소 실태

❍ 파리 하수도의 특징은 첫째, 오수와 하수가 함께 처리되며. 둘째, 하수와 우수가 통합되어 세느강으로 바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시로부터 17km떨어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연결되어 처리된다. 이 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80%는 세느강으로 보내지며, 나머지 20%는 다시 파리 시내로 보내져(중수도) 길거리 청소물로 쓰인다.

❍ 파리 하수도의 특징인 이 중수도는 길거리 청소원들이 청소차를 끌고 다니지 않고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쓸어 거리 하수관 입구(도로 배수구)에 쓸어 넣으면 이것이 지하 하수도관으로 들어가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 좁은 골목 등은 소형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수시로 노면 청소를 실시하고 소형 진공청소기를 활용한 가로청소 등 청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중수도를 이용한 가로청소 >

< 골목 청소용 소형차량 >

< 장소별 다양한 청소도구 활용 >

< 쓰레기 수거 차량 >

Ⅴ 향후조치계획 및 후기

1 향후 조치 계획

- ❍ 공무국외 출장 결과 도 집행부 통보 및 의정활동 자료 활용
- ❍ 본회의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제280회 임시회 중)

2 공무국외 출장 후기

- ❍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공무국외 출장을 계획하였지만, 동물전염병인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공무국외 심의 시 심의위원의 염려가 있었으며, 관련 기관 방문을 추진했으나, 방문 일정 조율의 어려움으로 해당 기관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
  -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파견된 파리 주재관을 통해 프랑스 농림부와 국제수역사무국 등의 동물전염병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직접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료 수집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음.

- ❍ 여러 국가의 다양한 지역의 공무국외 출장 일정으로 차량이동 시간이 길어지는 등 참석자의 피로 누적과 짜임새 있는 공무국외 출장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 여러 국가, 장거리 이동보다는 확실한 주제, 같은 목적으로 다양한 기관 방문 등 짜임새 있고, 충실한 출장 계획 수립 필요.

- ❍ 스위스 투르가우주 의회 방문 시 단순히 의회 방문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의 명소와 선도적인 정책 수행기관 등 총 3명의 기관 책임자가 우리 위원회를 안내해 줘 기관방문의 의미를 더했음.